

친환경 접착제, 코스트 장벽 높다!

기술발달로 기존제품과 동등한 기능 발휘 ... 가격 높아 수요 제한

접착제 생산기업들은 청정공기법 시행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나 수요기업들은 여전히 친숙한 기존 제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청정공기법 시행으로 인해 환경친화적 제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일부 기업들만이 환경친화적인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다.

Bostik Findley의 Flooring Group에 따르면, 대부분의 수요기업들은 공급기업의 입장에 놓이거나 더 이상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까지는 기존 접착제를 계속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의 친환경 제품은 기존 접착제에 비해 기능이 떨어져 수요기업들이 사용을 꺼려왔으나 기술이 발달하면서 친환경 접착제의 기능이 기존 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향상됐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접착제는 최상의 기능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VOC(Volatile Organic Compound)를 거의 방출하지 않으며 다루기도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W.F Taylor는 14년 동안 환경 접착제 사업에 주력해 왔으며 기술개발을 통해 VOC 방출량이 많은 기존 제품에 비해 자사의 Envirotec 접착제 등 친환경 제품의 기능이 훨씬 뛰어나다고 보고 있다.

W.F Taylor에 따르면, 1990년 바닥재 분야를 겨냥해 출시된 Envirotec 계열 제품은 최근 더욱 강화된 VOC 방출규제에 부합한다.

접착제 공급기업들은 수요기업들에게 최근 개발된 친환경 접착제에 대해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점점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접착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몇 년 전에 비해 인지속도가 가파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코스트 부담이 환경친화적 접착제 수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접착제 공급기업들은 몇몇 제품이 기존 제품에 비해 코스트가 다소 높지만 가격차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기업들은 코스트를 절감하기 위해 저렴한 접착제를 선호하고 있어 접착제 공급기업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화학저널 2004/12/02>